

國民學校에 있어서의

讀書指導計劃

郭 眞 鎔

(麗水西國民學校 教師)

머 리 말

學校圖書館이 學校教育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基本的인 施設로서 教育者의 脚光을 받게 되자 各級 學校는 이 施設에 앞장서 제법 現代의인 施設로서 그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은 이제까지 “세교육”하고 부르짖었던 20年間의 教育 슬로건이 그 자리를 옮겨 잡은 듯 하니 이에 關係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쁨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學校圖書館의 教育的 價値性을 옳게 認識하지 못하고 施設은 施設로서 그치거나 그 以上の 教育的인 活用方法을 摸索하지 못하여 모처럼 莫大한 財源을 投資하여 이룩된 學校圖書館이 圖書館으로서 그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음은 여러 面에서 큰 損失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學校圖書館이 開館되고 運營된다면 첫째 부딪치는 問題가 資料의 整備問題요, 둘째 問題가 運營者 및 經營의 問題요, 다음이 資料의 利用問題 卽 讀書指導의 問題라 하겠다.

앞에 列擧한 두 問題에 對하여서는 이미 本誌를 통해서 斯界의 여러 先輩님께서 言及이 있었으므로 셋째의 問題인 讀書指導에 對하여 特히 國民學校에 있어서의 讀書指導의 問題에 局限해서 愚見을 論하려고 한다.

讀書指導의 必要性

讀書指導는 讀書가 前提條件이 된다. 그러면 讀書란 무엇이나? 말할 것 없이 文字를 읽는 것이다. 우리는 이 文字를 읽는 生活 속에서 每日 生活을 하고 있다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現代는 特히 「매스컴」의 發達로 因하여 더욱 이 讀書하는 生活이 몸에 젖어 가고 있음은, 每日 아침마다 配達되는 新聞에서 새로운 뉴우스를 읽고 世界의 움직임을 理解하고 읽을 거리를 읽음으로써 보다 부드럽고 餘裕 있는 生活과 思考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읽은 生活 속에 우리가 生活하고 있다는 證言이기도

한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日課表를 보면서 오늘 學習할 用具를 準備하고 要求되는 여러 豫備調査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는가 旅行하는 사람들이 車中에서 雜誌 책을 읽으면서 혼자 웃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아마 그 雜誌 책 속에서 무엇인가 喜悅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모두가 讀書를 通하여 生活하는 우리들의 社會生活이란 것은 다시 말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讀書를 어떻게 指導한다는 것이나?

우리는 過去에 너무나 이 讀書란 問題에 對하여 教育에서 外面을 했었다.

집에서 教科書를 만지작 거리면 父母는 兒童을 工夫 잘 한다고 稱讚해 왔지만 한 말자욱 앞장 서서 다른 읽을거리를 읽으면 그것은 工夫가 아니라고 叱責을 했었다. 그래서 兒童은 父母를 避하여 讀書를 즐기는 外道の 길을 擇하기도 했었다. 家庭에서 길을 잃은 이들 兒童들은 그 慾求의 充足을 찾기 爲해서 學校圖書館의 문을 두드렸지만 이에 對한 理解의 不足으로 因하여 事實 指導라기 보다는 放任狀態였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까지의 教育現場이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放任狀態에 있었던 讀書問題를 學校에서 教科時間도 없는데 어떻게 指導하여 바른 讀書法을 몸에 익히게 할 것이나 따지고 보면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려운 일을 教育을 爲해서 兒童을 爲해서 우리 文化의 向上을 爲해서 어떠한 困境이 있더라도 이룩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美國의 教育政策委員會에서 文盲者를 區分하는데 있어 다음의 3區分을 했다는 興味있는 事實로서도 얼마나 國民學校에 있어서 讀書指導의 問題가 重要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卽, 첫째 文盲者는 전혀 文字를 읽지 못하는 文盲者 둘째 文盲者는 學校에 다닐 적엔 教科書를 읽으나 卒業을 하면 전혀 글을 읽지 않는 文盲者

셋째 文盲者는 學校를 나와서도 책을 읽지만 價値 있

는 책을 選擇해서 읽지 않는 文盲者(阪本一郎 著 讀書 핸드북에서)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現在 우리 周 邊의 大多數의 人士가 文盲者에 屬하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런 文盲者에 屬하지 않기 爲해서 自然 國民學校의 兒童期부터 讀書하는 指導를 잘 하여 健全 人間에의 素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은 多數人口의 學校, 多數人口의 學級人員 때문에 事實 個別指導가 가장 要求되는 讀書 指導는 教師의 助言을 받을 機會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家庭에서나 이 指導를 받을 만큼 學父兄의 理解가 一般化되었나 하면 그렇지 않은 事實에 비추어 兒童들의 讀書實態가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國民學校 때의 좋은 習慣의 形成이 얼마나 個人의 人間形成에 바탕이 되는가는 俗談 그대로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한 마디로써 證言되기 때문에 讀書 問題도 이와 같은 原理라고 생각해서 過히 틀림 없을 것으로 보아진다.

讀書指導의 體系

앞에서 讀書指導의 必要性에 對하여 言及하였다.

지금 施行中에 있는 우리 나라 教育課程에서는 이에 對한 關心이 相當히 크게 反映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을 教育課程에 나타난 그대로 이에 拔萃하여 본다면 國語科의 目標 중에서 먼저 찾아 볼 수 있다.

- (1) 趣味를 가지고 圖書, 雜誌, 新聞을 읽는다.
- (2) 文庫 및 圖書館을 利用할 줄 안다.
- (3) 調査와 參考를 위해서 辭典 및 參考書를 利用한다.
- (4) 知識과 情報를 얻기 爲해 책을 읽는다.
- (5) 文學作品 鑑賞에 趣味를 갖는다.

國語科의 學年別 目標에서 다시 具體的인 學年目標를 찾아 본다면

1學年에서는

- ① 바른 자세로 책을 다루도록 한다.
- ② 스스로 간단한 글이나 이야기를 읽는데 힘쓰도록 한다.

2學年에서는

- ① 혼자서 책을 읽고 즐기도록 한다.
- ② 읽은 것을 차례대로 이야기 하도록 한다.

3學年에서는

- ① 읽을 목적을 위하여 책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
- ② 긴 문장을 읽으며 중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책을 읽어 필요한 것을 알고 조사하도록 한다. 4學年에서는

- 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고 되는 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아동문학이나 신문, 잡지를 즐겨 읽고 학급문고의 활용에 힘쓰도록 한다.

5學年에서는

- ① 문제해결을 위하여 참고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긴 문장을 읽으며 중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항상 책이나 글을 읽고 난 감상을 쓰도록 한다.

6學年에서는

- ① 문학책이나 글을 읽고 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읽어서 얻은 것을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한다.
- ③ 독서에 취미를 가지고 효과적 독서활동에 힘쓰도록 한다.

(국민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발행 1963판)

以上과 같은 目標下에서 讀書指導에 留意하도록 教育課程에서는 要求하고 있으나 事實 教育現場은 다른 여러 教育問題의 解決을 爲해서 이에 對한 具體的인 指導方法을 講求하지 못하는 形便이며 學校圖書館의 施設을 기껏 利用하여 指導한다는 것이 莫然히 圖書館에 가서 讀書를 하라고 만 督促하는 傾向이다.

莫然히 책을 읽고 거기에 썬어져 있는 內容을 拔萃해 오라고 하여 檢閱을 해주는 現象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讀書生活를 助長시킬 수 있겠는가?

오히려 讀書에 對한 興味를 잃게 하거나 讀書忌避者를 養成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疑問되는 點도 없지 않다.

우리를 教師는 모든 問題를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다음 行動으로 轉移해야 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흔히 研究學校는 그 研究課題에 對해서 훌륭한 成果가 있었다고 公言하지만 좀더 內面을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兒童들은 教育研究로 因하여 오히려 그 部分의 趣味生活마저 싫어하는 境遇를 發見할 수 있으니 이것이 누구의 罪인지 가슴 아프게 생각될 때가 있다.

具體的인 事例를 들자면 某學校가 3, 4年 동안 美術科 指定校로서 거둔 成果는 對外的으로 볼 때 그야말로 훌륭했다고 稱讚 받았지만 兒童들의 趣味狀況을 調査해 보았더니 學級 全體兒童의 65%가 넘는 數가 美術科가 싫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 것인지는 指導하는 教師로서 한 번 꼭 吟味해야 할 일이라고 보아진다.

이와 같이 讀書指導의 問題도 讀書, 讀書하고 입버릇처럼 말만 해 보았자 兒童들은 오히려 讀書로부터 退

避하고 도망치는 것이라 믿어질 때 指導技術의 問題가 提起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學校圖書館이 設置되었다면 먼저 學校 나름의 指導計劃을 樹立하여 具體的인 指導方法부터 세워서 計劃에 따라 하나 하나 實踐하여 간다면 오히려 앞에 말한 趣味生活의 忌避가 아니라 助長이 되리라 믿어 疑心치 않는다.

예를 들자면

(1) 目 標

- ① 圖書 및 圖書以外的 資料를 活用하여 各 教科學習을 보다 効果的으로 이루게 한다.
- ② 興味에 따라 各 個人의 能力에 맞는 圖書를 읽게 하여 經驗을 넓히고 生活를 深化시킨다.
- ③ 위와 같은 讀書指導를 爲하여 圖書館教育을 통한 圖書館 및 圖書와 圖書以外資料의 利用能力 및 讀書의 基礎技能을 높여 준다.

(2) 方 針

- ① 學校의 모든 教育은 圖書館을 中心으로 經營하고 圖書館과 關聯 짓도록 努力한다.
- ② 讀書指導는 特定教科나 特定時間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兒童生活의 全領域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讀書指導를 體系化하여 指導의 效率을 높인다.
- ④ 讀書指導는 個別指導를 重視하여 兒童의 能力과 興味를 最大限으로 살리도록 한다.

(3) 讀書指導의 體系

讀書經驗의 系列

- ① 基礎的 讀書指導
- ② 自覺的 讀書指導
- ③ 技能的 讀書指導
- ④ 生活的 讀書指導

讀書指導의 學年別 目標

1學年

- ① 어떤 책이나 다 표지나 내용이 있어서 작작 하는 일이 따로 있음을 안다.
- ② 책을 보고 넘기는 방법을 알고 바른 자세로 책을 다룰 수 있다.
- ③ 책을 사이 좋게 읽을 수 있다.
- ④ 여러 사람이 독서할 때 되도록 조용히 읽는다.
- ⑤ 책을 읽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간단한 글이나 이야기를 읽는데 힘쓴다.
- ⑥ 읽은 것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2學年

- ① 책의 본문이나 삽화를 안다.
- ② 책의 취급법을 안다.
- ③ 혼자서 책을 읽고 즐기며 스스로 이야기나 시를

읽는데 힘쓴다.

- ④ 그림이 많지 않은 책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 ⑤ 간단한 이야기를 되도록 상세하게 끝까지 읽을 수 있다.
- ⑥ 읽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메모나 느낌을 글로 쓸 수 있다.
- ⑦ 읽은 것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 하거나 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할 줄 안다.

3學年

- ① 긴 이야기를 끝까지 즐겨 읽으며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읽는다.
- ② 취미를 위하여 글을 읽을 줄 알며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찾을 줄 안다.
- ③ 목적을 위하여 책을 선정하고 독서할 수 있다.
- ④ 목차를 이용할 줄 안다.
- ⑤ 학습에 관계 있는 책을 읽고 필요한 것을 알며 조사할 수 있다.
- ⑥ 읽은 책의 책명이나 간단한 감상을 쓸 수 있게 한다.

4學年

- ① 목록을 할 수 있고 적당한 속도로 읽을 수 있다.
- 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를 하고 참고되는 글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읽은 것을 분석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그림, 연극 등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 ④ 여러 가지 문장을 즐겨 읽을 수 있게 된다.
- ⑤ 간단한 독서록을 쓸 수 있게 된다.
- ⑥ 도서관을 스스로 이용하려고 힘쓰고 좋은 책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5學年

- ① 문제해결을 위한 독서를 할 수 있다.
- ② 색인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독서를 할 수 있다.
- ③ 정도에 맞는 좋은 책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④ 항상 독서록에 감상을 쓸 수 있게 한다.
- ⑤ 계획적이고 계통적인 독서를 할 수 있게 한다.
- ⑥ 읽은 책의 내용을 비판하고 문제를 잡을 수 있게 한다.
- ⑦ 책을 읽고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데 힘쓰게 한다.

6學年

- ① 능률적인 독서를 할 수 있게 한다.
- ②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게 한다.
- ③ 감상이나 비판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 한다.
- ④ 충실한 독서록을 쓸 수 있게 한다.
- ⑤ 신문이나 소개문을 읽고 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⑥ 독서를 생활화 하게 한다.

(麗水東國民校校 讀書指導計劃에서)

위에서 學校 및 學年別 讀書指導目標을 例示하였지만 讀書指導란 이러한 目標을 到達시키기 爲하여 어떻게 할 것이나 오려 重要하다.

國民學校에 있어서의 讀書指導의 核心은 흔히 말하는 讀書의 目的에 따라 읽는 方法이 다르다는 點을 指導하는 傾向이 짝으나 卽, 讀書는

- ① 日常生活에 必要한 情報과 知識을 얻고
- ② 學問을 研究하는데 있어 調查研究의 目的으로
- ③ 教養과 娛樂으로 人生을 즐기기 爲해서

讀書한다는 것보다

- ① 讀書의 習慣, 態度, 知識, 技能의 養成
- ② 讀書力의 伸長
- ③ 不良圖書의 豫防
- ④ 讀書趣味의 鼓吹
- ⑤ 慰安, 娛樂, 教養을 爲한 讀書指導로서 讀書하는 姿勢와 讀書에 對한 興味를 일으켜 주자는 것이다.

이 點을 核心으로 해서 國民學校에 있어서 讀書指導의 方向이 자리잡게 된다면 거창스러운 이 問題도 쉽게 解決 되리라고 믿는다.

圖書館教育의 範圍와 體系

앞에서 말한 讀書指導를 效果의이며 能率의으로 이끌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바탕이 되는 圖書館教育의 必要性을 느끼게 된다.

大概의 境遇 圖書館이나 圖書室을 設置하고 圖書를 書架에 排列하여 두면 그것으로써 學校圖書館이 運營되리라는 생각이 짝으나 그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莫大한 國家財源이 너무나 無價値하게 死藏되고 있거나 할까?

아름은 既往에 設置된 것이니 보다 教育的으로 그리고 效果的인 利用方法을 模索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것은 비단 學校圖書館이 學校의 心臟部의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는 그것보다 兒童의 全人的인 人間形成을 爲해서 보다 切實性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學校圖書館을 利用하는데 따른 모든 理解를 가지게 하여 讀書生活의 習慣化를 期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圖書館教育을 爲한 教育課程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教育課程이 마련되면 實際 兒童을 指導하는 時間이 確保되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對한 具體的인 方法을 提示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學校 나름에 따라 이 教育을 몇 군데서 實施하고 있음을 誌上을 通하여 알고 있

지만 이 具體的인 計劃案이 時急히 要請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圖書館教育의 內容을 紹介하면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가?의 單元이 設定되었던

- 1.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좋은 책과 좋지 못한 책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 2. 학습을 위하여 어떤 도서를 이용한 일이 있었던가를 이야기 한다.
- 3. 좋은 책이란 어떠한 책을 말하는가.
- 4. 여러 가지 책 읽는 방법
 - a. 이제까지 읽은 방법에 대하여
 - b. 바른 책의 읽는 방법
- 5. 읽은 뒤에 어떻게 하면 좋을가.
- 6. 학습에 도서를 이용하는 요령

등에 對하여 指導를 한다면 한층 讀書하는 態度, 技術이 달라지며 能率도 向上되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위에 言及한 讀書要領과 圖書館의 機能 및 讀書衛生에 對한 內容들이 學校行事, 特別活動, 教科學習 등을 通하여 強調되고 指導된다든지 特別한 時間을 設置하여 圖書館 혹은 教室에서 指導된다면 보다 徹底한 指導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讀書指導의 一般의 方法

1. 讀書趣味의 誘發

물을 마시기 싫어하는 말(馬)을 물을 먹이기 爲해서 냇가로 끌고 갔지만 결국 말한테 물 한 목을 먹이지 못하고 되돌아 오는 馬夫와 같이 讀書를 싫어하는 兒童을 아무리 讀書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讀書를 勸獎하거나 半強制로 끌고 나가 보았자 結果는 뻔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放任할 수는 없는 것이 教育이 아닌가?

무엇인가 方法을 講究해야겠다. 그것이 讀書趣味의 誘發이다. 卽 讀書趣味를 어떻게 誘發시켜 讀書에 好意慾을 가지고 行動으로 옮겨질 것이나 하는 問題다. 말할 것도 없이 環境의 整備를 充實이 해야겠다.

閱覽室의 讀書 雰囲気를 助成시키기 爲해서 裝飾品과 揭示物을 讀書하기에 알맞은 施設로 完備하여 讀書意慾을 提發하게 하고 新刊圖書의 案内 등을 通해서 보다 讀書에의 길을 誘發하여 自然스럽게 讀書하는 方向으로 이끌자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讀書 入門期의 指導로서도 通하며 아직 讀書라는 길에 들어 서지 못한 兒童들을 爲해서도 必要한 것이다.

그 외에 多讀者를 表彰한다든지 圖書館報를 發行하

여 圖書館의 새로운 뉴우스를 알리고 讀書鑑賞會, 讀書討論會 等도 開催하여 圖書館과 兒童과의 距離를 가깝게 하고 簡易讀書室을 마련해서 讀書하는 데 즐거움을 가지도록 한다면 讀書에의 興味는 한층 부드러워지고 意慾의인 活動으로 나타나리라고 믿는다.

이러한 讀書興味의 誘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兒童의 個別指導와 集團指導를 통하여 讀書에의 深化를 期해야 한다고 본다.

2. 個別指導

兒童個個의 讀書興味 能力에 따라 個人別의 指導計劃을 樹立하여 그 兒童의 實態에 立脚한 指導를 통해서 兒童 個個人의 讀書能力을 붙여 주어야 한다.

그러기 爲해서는 讀書相談의 時間을 마련하여 兒童이 讀書하여 가는데 있어서 疑問되는 點을 풀고 助言함으로써 各自의 讀書計劃을 樹立하는데 도움을 주며 讀書記錄, 讀後要約, 課題讀書를 통하여 더욱 讀書指導의 個別化에 힘쓰므로써 學習의 個別化와 같이 讀書의 個別指導로서 兒童의 人間形成의 기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 個別指導에서 가장 重要한 일은 兒童의 圖書選擇 問題이다.

지금 兒童의 讀書實態를 注視해 보면 自己의 程度에 알맞는 讀書를 하는 兒童은 極히 드물고 大概의 境遇程度보다 높거나 낮은 圖書를 選擇해서 읽고 있는 形便이며 設使 程度에 맞는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讀書記錄을 통해 보면 너무나 偏重된 讀書를 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勿論, 兒童의 世界가 童話나 童詩를 즐긴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읽는다는 것은 健全한 人間을 形成한다는 데 있어 너무나 동떨어진 일이 아닌가 한다.

圖書를 選擇하여 讀書를 한다는 것은 相當히 發展된 讀書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을 兒童 스스로가 하기에는 知的 發達段階로 봐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學校에서 各 學年에 알맞는(讀書發達段階에 맞추어) 읽을 거리의 리스트를 作成하여 적어도 이것만은 꼭 읽고 넘어가도록 하는 制度를 마련한다면 多角度的 讀書가 自然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이 주일에 읽을 책 혹은 이 주일의 名作巡回等의 巡回式 圖書를 紹介하여 이 制度의 活動을 多樣化할 수도 있으리라고 믿는다.

아름은 圖書選擇의 指導는 讀書指導의 深化를 期하는데 있어 다시 없는 問題이기 때문에 學校圖書館에서 적어도 이 問題 하나만은 꼭 運營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3. 集團指導

兒童들의 思考背景이 되어 있는 生活經驗은 各個人

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받아 들이는 思想이 같을 수 없음을 勿論이다.

이 같을 수 없는 思想을 自己와 比較하면서 받아 들일 것은 받아 들여 自己의 生活經驗을 擴充시키는 機會를 共同의 場으로 만들어 서로의 情報를 交換하는 集團의 讀書指導가 必然의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이 集團讀書를 통하여 自己가 알지 못하고 注意하지 못한 點을 他人으로 부터 배우고 깊이 있는 思考의 習慣을 몸에 부치게 되며 集團思考力으로 因하여 어려운 問題도 解決 지우는 學習場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讀書誘發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어 以外에도 도움이 되는 發展的인 過程을 밟아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에는 指導教師로서 留意하여야 할 事項도 많다.

即,

- ① 教師가 먼저 作品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 ② 兒童 全體가 읽을 수 있는 量의 圖書가 確保되어 야 하며
- ③ 그 圖書가 教育的으로 讀書發達 過程의 內容으로 兒童에게 알맞는가를 檢討된 뒤에
- ④ 指導者가 疑問點이나 問題點을 假想하여 充分한 資料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하여 集團讀書를 指導한다면 自然 兒童들의 對話가 여러 면에서 活潑히 討議되어 보다 充實한 指導의 效果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4. 教科學習에 있어서의 讀書指導

모든 教科는 多少의 差는 있을지언정 거의가 圖書館 資料를 利用하여 學習된다. 그러므로 그 指導에도 各 教科다마 獨自的인 指導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當然한 일일 것이다.

(1) 國語科에 있어서

國語科는 讀書適應의 基本條件인 讀書準備段階를 形成하는데 있어 基礎가 되는 教科이므로 讀書指導에 一般 教科中 가장 重要한 教科라고 생각한다.

國語科는 讀書의 基礎的인 技術을 習得시키는 即, 語彙의 擴張, 語意의 理解 및 深化에서 辭典 및 事典의 利用教育으로 發展시켜 讀書하는데 必要한 基本條件을 이 教科에서 指導함으로써 段階的으로 讀書法을 익혀 文學을 鑑賞하고 批判하는 讀書로 부터 速讀, 默讀 等의 讀書術을 訓練시켜 보다 빨리 正確히 읽는 讀書態度를 다듬어 주고 國語科에서 發展하여 讀書指導의 方向으로 誘導하여 책을 읽게끔 하는 것이 重要하다.

(2) 社會科에 있어서

社會科는 民主社會에 있어서 다른 人間關係를 理解시키며 社會生活를 바르게 理解시켜 社會에 適應하는 態度나 能力을 體得케 하는데 學習目標가 있다고 할 때 自然 學習方法도 直接經驗을 重視하기도 하나 모든 學習을 直接 經驗만으로 解決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기 때문에 自然히 視聽覺的 補助資料나 讀書活動으로 부딪친 問題를 解決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當然한 일이다.

政治, 經濟, 道德等 問題들을 풀 수 있는 各種의 事典, 圖表, 圖解등을 活用한다든지 地理의 內容의 것을 百科事典, 年鑑, 新聞雜誌 등으로 問題를 解決하려는 따위는 비단 學習者 뿐 아니라 指導者에게도 必要한 일인 것이다. 더욱이 社會科指導에서는 批判的 讀書指導를 通해서 問題의 核心을 파고 들어가 오늘의 現實과 未來像을 豫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읽기의 指導가 무엇보다도 必要한 것으로 안다.

(3) 自然科에 있어서

自然科는 自然環境의 諸現象이나 事物을 對象으로 하여 探求하는 일이다.

따라서 實驗, 觀察이 主가 되기 때문에 讀書指導가 等閑視되기 쉬우나 學習의 對象은 自然이나 事物이 基礎이지만 그 方法의 過程에서는 讀書活動에 依하여 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事象의 世界를 擴大한다든지 나아가 間接經驗을 可能케 하는 能力을 體得케 하는데 讀書指導가 必要한 것이다.

即, 圖表와 圖解의 理解, 參考書를 通하여 어떤 結論을 얻기까지의 論理的인 思考를 爲한 讀書活動이 무엇

보다도 重要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法則을 理解하기 爲하여 相互間的 關係를 把握하여 分類하고 共通性을 찾아 내는 技術등을 習得시키는 것 등은 모두 讀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봐서 이에 對한 指導도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4) 그 밖의 教科에서

各己 教科가 가지는 特性에 따라 基礎的인 問題만 解決하여 준다면 自然히 自己 스스로 課題를 풀기 위해서 讀書하는 形態로 어떤 過程을 밟기 마련인데 그 過程을 밟아 올라 서게 하기 爲해서 教科마다 讀書指導를 함과 아울러 圖書資料의 案內를 徹底히 하여 줌으로써 教科書만으로 얻어지는 知識을 더욱 깊이 있고 自然스러운 가운데 人間이 가져야 하는 基礎的이고 普遍的인 知識을 習得시킬 수 있다는 點에서 정말 時急히 教師가 指導技術을 改善해야 하고 또 實踐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具體的인 案內를 이에 紹介한다면 어떤 教科學習이든지 指導하는데 系統案이 있을 것이므로 이 系統案에 圖書資料를 紹介하는 어떤 方法이 模索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를 아래에 든다

讀書指導의 施策

그러면 學校에서 讀書指導를 한다고 할 때 어떤 方法으로 實施할 것이냐 하는 問題는 정말 重要한 問題다.

왜냐 하면 事實 教育現場은 이것 외에도 다분히 많은 業務가 教師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월	주	단 원		시 간	주 안 점	주요 학습 및 해결 과제	관 련 도 서					
		단 원 명	성 격				아 동 용		교 사 용			
							도서명	칭구 번호	책쪽	도서명	칭구 번호	책쪽
5	12	전해 오는 이야기	창	18	· 전해 오는 이야기 동화를 즐겨서 읽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남에게 전할 수 있다. ·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읽고 비판하고 감격할 수 있다.	· 전해 오는 이야기를 모아서 읽어 본다. · 꽃에 대한 전설을 알아 보자. · 문익점에 대한 책을 읽어 보자. · 흥부전을 읽어 보자. · 재미 있는 전설을 그림 연극으로 꾸며 보자.	한국전설집	389	고대고설집	389	398	
	13	· 할미꽃 · 목화와의 문익점					흥부전	991		회국의 발견		812
	14	· 제비와 흥부					송이골 다람쥐	388 811		한국민간전설집		389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讀書指導란 兒童들의 生活, 情緒, 餘暇善用 및 學習을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떤 指導보다도 事實에 있어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고 보아야 옳은 것이다.

그러면 그 具體的인 施策은 어떤 것이냐 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 自由時間을 利用한 讀書指導

① 아침 時間

아침에 學校에 登校하면 大概 어느 學校나 아침 自習時間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時間을 利用하여 學級文庫 혹은 圖書館의 圖書를 利用하여 集團指導나 自由讀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其他의 自由時間

點心時間 授業이 끝난 課外時間에 그룹 別로 讀書指導를 한다든지 自由讀書를 하는 것을 指導하는데 좋은 時間이라고 하겠다. 이 時間은 擔任教師가 直接 指導하는 그룹別 指導도 있겠으나 司書教師가 直接 專門的인 指導를 할 수 있는 좋은 機會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2) 教科時間中の 讀書指導

① 學習의 全分野에서

讀書指導와 密接한 教科인 國語, 社會, 自然科뿐 아니라 其他의 教科에 있어서 각己 教科가 要求하고 目標하는데 따라 讀書指導의 必要性을 가지게 된다. 卽 算數科에 있어서 統計表의 읽기 등은 좋은 例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어느 教科를 莫論하고 教科學習過程에서 그때 그때 讀書指導를 하자는 것이다.

② 必要資料의 案内

學習過程에서 調査할 事項을 課題로서 圖書名을 알려 課題讀書를 시킴과 아울러 그 結果를 發表討議하고 圖書館에서 辭典을 全 學級이 퍼서 그 찾는 方法을 直接經驗시키는 따위는 讀書指導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일인 것이다.

(3) 圖書館教育時間의 設定

이에 對해서는 前述한 圖書館教育의 必要性에서 言及되었으므로 省略하나 이를 간단히 적어보면

① 每週 特活時間이나 課外時間 혹은 教科時間中에서 圖書館教育을 實施한다.

② 指定된 날은 圖書館에서 直接指導한다.

③ 圖書館教育課程에 依하여 擔任教師가 指導한다.

(4) 特別活動에서의 讀書指導

우리 나라 教育課程을 大別하면 教科課程, 特別活動, 反共, 道德課程의 領域으로 區別할 수 있다. 그래서 讀書指導 讀書生活의 속에 넣어서 指

定한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래서 兒童의 集合, 그룹, 學級會의 活動等的 組織 안에서 指導함으로써 서로 즐거운 讀書刺戟을 주면서 調査하기爲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읽는 指導를 하자는 것이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美術 그룹에서 어떤 設計를 꾸민다고 할 때 여러 參考文獻들을 參考하도록 指導하여 보다 發展的이고 創造的인 設計圖를 立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이 바로 特別活動을 통한 讀書指導라고 할 수 있다.

(5) 校內 放送에 依한 讀書指導

校內 學校 放送 프로에 名作巡禮時間, 感想文 發表, 新春 圖書案内, 圖書館 案内等的 時間을 넣어서 放送을 통한 讀書指導를 한다면 매스컴을 利用한 最大의 效果를 노리는 結果가 아닌가 생각한다.

日常生活에서 보고 읽는 讀書보다 귀로 들으면서 讀書에 對한 意慾을 가진다는 것은 放送을 통하여 聽取하는 프로처럼 興味있는 일로서 放送프로만 잘 構成한다면 相當히 效果的인 讀書案内 및 指導라고 보아 疑心치 않는다.

(6) 讀書記錄에 依한 讀書指導

讀書記錄은 兒童의 讀書歷인 同時에 成長發達過程의 산 證據이며 同時에 生活歷의 一部分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兒童이 讀書를 한 뒤에는 반드시 讀書錄에 簡單한 書誌事項을 記錄하게 하고 그 밑에 感想文, 調査事項, 즐거위, 備忘事項等を 記錄케 함으로써 兒童은 그 讀書錄 한 卷에 依해서 그 生活 讀書를 把握할 수 있기 때문에 指導者로서는 個人 指導를 하는데 가장 좋은 資料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꼭 이러한 記錄을 시킬 것이냐 하는 問題는 指導하는 教師로서 充分한 研究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 밖에 讀書發表, 休暇中の 讀書指導, 讀書週間 行事, 推薦圖書에 依한 讀書指導, 年中行事에 따른 讀書指導 등을 찾아볼 수 있으나 아뭏든 이런 施策이 問題가 아니라 指導하는 教師가 얼마나 이 問題에 對하여 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對한 努力을 하느냐에 따라서 讀書指導의 問題가 解決되리라고 생각한다.

맺 는 말

國民學校에 있어서 讀書指導는 한 마디로 말해서 讀書習慣을 길러 주는 것이 가장 基本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基本된 習慣을 붙여 주기爲한 手段과 方法을 어

(9면에 繼續)

例: 高麗時代史 KDC 911.24

高麗時代史 慶尙道 KDC 911.804

清史 KDC 912.06

清朝의 華北地方史 912.106

이 時代區分은 各國史 및 必要에 따라서는 地方史에도 여기의 例와 같이 適用할 수 있다. 그리고 歷史에 있어서 時代區分이 0을 同伴하는 例는 DDC NDC가 모두 共通이다.

다. 歷史에 있어서는 時代區分에 <0>이 하나 使用되었으므로 特別한 例를 除外하고는, 形式區分은 0을 둘 同伴한 것이 된다.

例를 들면 韓國國史事典은 911.003이고 911.03(三國時代史)가 아니다.

이 地理區分은 大陸區分과 國家區分 및 地方區分으로 이루어지며 KDC DDC NDC 등의 十進分類表系統에서는 이 歷史의 地域區分을 地理에서도 各國의 地理區分으로도 適用하였으므로 歷史와 地誌가 完全한 助記性を 維持하고 있으며 또 이 地理區分은 그 適用이 發展하여 어떤 特殊主題, 例를 들면 經濟, 政治, 教育, 行政, 風俗, 音樂等等……이 어느 特定地域을 限界로 해서 다루어졌을 경우, 그 地域의 表示로서도 使用되는 것이다.

이 地理區分은 國際情勢나 戰爭으로 因해서 자주 많은 變更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第2次大戰後에 있어서의 西歐의 植民國家이었던 아프리카의 數 많은 獨立國家의 出現과 가까운 例로서는 敗戰 日本의 中華民國에 對한 臺灣返還과 樺太 및 千島列島의 소련에 對한 返還에 依한 領土變更도 들 수 있다. 또한 國內에서도 行政區域의 變更으로 地域이 變更되는 例가 있으니 例를 들면 錦山郡이 忠淸南道에 編入된 것이다.

이러한 地域의 變更에 隨時로 應해서 分類表의 地理區分을 改正해 나간다는 것은 성가신 일이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適應할 것인가 하는 點을 DDC事務局에서는 政治的인 提携에 依하는 것 보다도 比較的인 固定的인 地圖上의 位置에 依할 것을 勸했고, 또 領土의 變更에만 訂正을 하고 한 나라 안에서 的인 것은 特別市 直轄市 道程度로 그치라고 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自館의 事情만 許諾되던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隨時로 誠實하게 適應해야 한다.

時代 및 治世

가. 한 時代나, 또는 한 治世를 다룬 著作은 바로 그 時代나 治世에 分類한다.

例: 唐史 KDC 912.038

나. 二時代나 또는 二治世를 同等하게 다룬 著作은 最初의 時代와 治世아래 分類한다.

例: 古朝鮮時代와 漢郡縣時代史 KDC 911.021

다. 三時代나 또는 三治世以上을 同等하게 다룬 歷史書는, 이것들을 包括하는 時代 아래 分類한다.

例: 高句麗·百濟新羅史 911.03

라. <나> <다> 어느 경우이든지 著者が 어느 한 時代나 治世를 重點的으로 強調한 것은, 그 強調된 時代나 治世아래 分類한다.

地方史

가. 한 나라의 한 地方에 限한 地方的 事件을 다룬 著作은 그 地方的 歷史 아래 分類한다.

나. 한 戰爭中의 한 地方的 歷史를 다룬 著作은 그 地方的 歷史아래 分類한다.

이 規定의 適用은 地方史를 目的으로 記述하였을 경우에만 한다.

다. 한 地方的 事件이 國家的인 運動(例: 蜂起, 革命, 反亂, 軍事行動等)의 一部를 構成하는 경우는 그 地方的 歷史에 넣지 않고, 그 事件이 있었던 時代나 戰爭의 一般史아래 分類한다.

라. 地方史를 地誌와 함께 混合配列하고자 하면 前述한 <歷史와 地誌의 融合排列規定>을 適用하여 다음과 같이 分類한다. KDC에 依해서 規定을 適用하겠다.

(1) KDC 911.1—99(地方史)는 KDC 981.11—981.199(地方地誌)에 分類한다.

例: 湖南史 981.19 (그렇지 않으려면)

(2) KDC 981.11—981.199는 KDC 911.1—911.99에 分類한다.

例: 湖南地誌 911.9

그리고 이 記號의 앞에다 G(eography)나 H(istory) 등의 頭文字를 써워서 歷史와 地誌를 區別하는 方法을 考慮할 수 있다. (次號에 繼續)

(26面에서 繼續)

떠난 方法을 擇함으로써 보다 바르고 옳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言及해 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問題가 兒童의 讀書發達이나 興味發達을 無視하고 먹이자는 것이 아니고 讀書心理에 알맞는 指導로서 보다 健全한 讀書生活을 하겠음 하자는 目的이 있다.

1원짜리 꾸겨진 돈을 가지고 거리의 圖書館?에서 無秩序한 讀書. 良書 아닌 惡書의 讀書生活에서 오는 兒童의 生活을 바로 잡아 주자는 데에서도 이 問題는 眞摯하게 研究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圖書를 書架에 꽂아 놓고 圖書館의 구실을 다했다는 그것은 健全하게 發展해 나가는 學校圖書館을 暗澹하게 만들 따름이다.

眞實로 學校圖書館이 學校教育의 心臟部의인 役割을 다하기 爲해서는 讀書指導의 體系的인 指導가 時急하게 要求되기 때문에 愚見을 말했을 뿐이다.